

우리는 이 시대의 고전을 만들고 있는가

Are we Making the Classics of this Period?

김낙중 /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건축사

by Kim Nark-Joong

건축은 인류문화유산 중에서도 제일 큰 위치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소한 제일 덩치가 큰 문화유산이라는 데는 거의가 동의할 것이다.

건축에는 그 성격상 그 시대의 사회 제현상과 문화 예술적인 면 뿐 아니라 과학 기술적인 면까지도 기록되고 있다. 결국 건축에는 그 시대의 삶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훌륭한 건축가의 의도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관계된 다양한 기능을 수용한다는 건축의 근본적인 존재근거에서 기인된다.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이러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긴 세월에 걸쳐 견뎌 낼 수 있는 물리적 내구성이 필수조건이다. 그래서 후대에 지각될 수 있는 물리적 실재로서 우뚝 서 있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고전에서 시공을 초월한 감동을 느낀다.

전문가들은 그것을 철학적, 사회학적, 인류학적, 미학적, 기술적 등의 각종 관심분야에서 분석적으로 대하겠지만, 그 외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주는 시각적 감동을 즐길 것이다.

고전들은 그 구성에서 그 시대의 정신, 사회 제현상 등의 인문학적 기록을 내포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그것의 형태나 재료 등을 통하여 예술적 감동을 주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의한 예술적 감동은, 우리에게 사전지식이나 준비 없이도 일차적이고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것으로서, 인간 개개인에 따른 다양한 감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동의 보편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즉각적이고, 시각적인 감동을 주는 고전의 내용에는 그 시대 장인들의 예술적, 기능적 craft 외에도 오랜 세월 풍화되면서 재료의 표면에 남아있는 세월의 기록들이 있다. 이는 건축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감동이다. 감각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인식을 통해 들어오는 그 시간성에 대한 감동이다.

이것은 그 재료의 쇠락함이 아닌 숙성됨에 의한 표현의 결과다. 이를 통하여 자연학적 관점의 재료는 인식론적 관점의 물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런 점에서 앞서 말한 문화유산의 물리적 내구성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고전의 반향은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 곁에서 항상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축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는 후대에 문화유산으로 남을 만한 이 시대의 고전을 만들고 있는가?

고전의 조형성은 양식이라는 틀 속에서 검증되어 왔으며, 양식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다듬어진 형태이다.

따라서 고전은 조형적으로 아름답고, 그 당시의 건축 생산 방식은 디자인과 만들기를 함께 하는 장인 (design builder) 들에 의해 건축이 생산되었다. 즉 예술과 기술이 분리되지 않은 통합적 생산 체계에 의해 건축이 만들어져 왔다.

그래서 고전은 뛰어난 장인들의 예술적, 기술적 craft에 의해 아름다운 조형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설계자와 건설자가 분리된 현대는 그 양상이 매우 다르다. 설계자는 디자인을 책상머리에서 궁리하는 자가 되었고, 건설자는 도면에 의해 공사를 집행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설계자는 장인으로서 내밀하고도 중요한 디자인 정보를 전달할 수가 없고, 건설자는 도면에 있는 기본정보에 의해 이윤 극대화를 위한 효율성 위주의 공사를 하면 된다.

결국 기본 정보만 있는 설계자의 도면은 기본법이요, 건설자는 기본법 이외에는 지킬 필요가 없이 경제성,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도면을 아무리 자세히 그려도 내밀한 장인정신과 건설중에 발생하는 우연성에 대한 대안을 표현할 수 없고, 공사를 아무리 꼼꼼히 하려해도 자기가 못 미치는 내밀한 craft를 구현해 낼 수 없다. 현재의 다양하고, 복잡하고, 대형화된 건축물에서는 더더욱 이런 기대를 하기 어렵다.

경제, 능률주의라는 현대사회의 풍조 속에서는 더욱 이런 기대를 하기 어렵다. 이런 가치관속에서 재료도 전통적인 재료에서 화학적 합성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의 내구성은 더욱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세월을 기록할 수 있는 나무, 돌, 벽돌 등에서 철, 유리, 콘크리트로, 또 타일, 타일과 같은 돌판, 플라스틱, 각종물질의 성형품으로 그리고 이제는 걸모습만 이런 재료들을 프린트한 각종 화학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런 재료들은 후대에 남을 만한 내구성도 없고, 모두 무늬와 내용이 다르다.

재료는 있는데 인식론적 관점의 물성은 보

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양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주도적 건축물은 아파트이다.

경제, 효율성에 의해 획일적으로 콘크리트에 페인트가 칠해진 벽식 구조의 사각형의 형태로서, 전면에는 전체가 발코니이며 그것도 대형 유리로 막혀져 있다. 어느 환경 어느 장소에나 이 틀은 변함이 없다. 미학적 배려에 의한 조형성은 찾기 어렵고, 법규와 대지형태에 따른 용적 극대화·이윤극대화를 위한 분절만 있을 뿐이다. 과연 이들은 이 땅, 이 도시가 주는 message를 투영하고 있는가?

관대하게 이런 현상이 이 시대 상황의 어쩔 수 없는 반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건축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을 회복하면서 이 시대의 고전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과연 이 땅이 무엇을 원하고, 현재의 효율적으로 발달된 기술과 재료에 내재된 정신이 무엇인가, 그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